

Sector comment

Korea / Media

10 March 2016

OVERWEIGHT



Stocks under coverage

Company	Rating	Price	Target price
CJ E&M (130960 KS)	BUY	77,700	106,000
SBS (034120 KS)	BUY	30,550	52,000
CJ 헬로비전 (037560 KS)	BUY	11,250	18,000
SBS 콘텐츠허브 (046140 KS)	BUY	12,300	19,000
스카이라이프 (053210 KS)	HOLD	16,100	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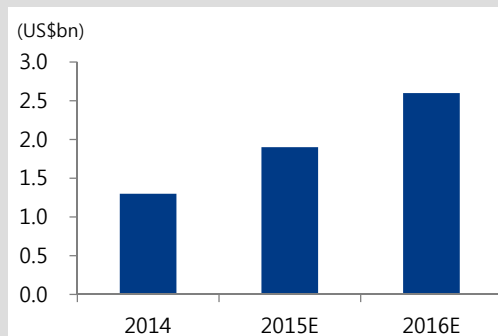
(주: 3 월 9 일 종가 기준)

SK 브로드밴드의 콘텐츠 투자 계획

투자	(십억원)
일반 영상 콘텐츠	120
융복합 콘텐츠 (MCN, VR 등)	60
해외 콘텐츠	40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100
전체	320

자료: SK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아마존의 콘텐츠 투자 계획



자료: Amazo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정윤미, Analyst

3774 1915 yoonmi.jung@miraeasset.com

미디어

옥수수과 아마존의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

지난 8 일, SK 브로드밴드는 향후 5 년간 5,000 억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함. SK 브로드밴드의 자체 미디어 플랫폼인 '옥수수 (oksusu)'를 중심으로 자체 콘텐츠 제작 증가에 따른 국내 OTT 시장의 콘텐츠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아마존은 자체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 8 일부터 패션 관련 토크쇼를 방송함. 이는 자체 콘텐츠를 활용하여 본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판단됨. 국내외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확대는 OTT 콘텐츠 다양화 및 타 사업과의 시너지 극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옥수수: OTT 향 자체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전망

SK 브로드밴드의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는 자체 미디어 플랫폼인 '옥수수'를 중심으로 국내 OTT 시장에서의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함.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TV에서 PC 및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 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각 사는 그동안 미디어 콘텐츠의 차별화가 어려워 상품 가격 인하 경쟁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콘텐츠 비용의 빠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콘텐츠 직접 제작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지난 1 월 SK브로드밴드는 'Btv 모바일'과 '호핀'을 통합하여 '옥수수'를 새롭게 출시하여, 콘텐츠 소싱 비용 절감 및 자체 콘텐츠 확보를 통한 가입자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 현재 CJ E&M의 DIA TV의 MCN 콘텐츠 및 JTBC와 공동 제작 토크쇼 '마녀를 부탁해' 등의 독점 콘텐츠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함.

아마존: 본업 경쟁력 확보 위해 미디어 투자 확대 중

미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를 활용한 본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고 있음. 아마존은 지난 8 일(현지시간) 오후 9 시에 자사 웹사이트에서 30 분짜리 뷰티 토크쇼 방송인 'Style Code Live' 생방송 서비스를 개시함. 세 명의 진행자가 패션 관련 쇼를 진행하고, 관련 상품 구매를 유도함. 이는 홈쇼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넷플릭스 등과 경쟁하기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함. 아마존은 2 일 이내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Prime 멤버(연회비 US\$99)에게 미디어 플랫폼인 'Amazon Prime Video'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Prime 멤버십은 월 8.25 달러(추가 혜택 포함)로 넷플릭스의 Basic 요금(8.79 달러) 수준이나, 경쟁사 대비 오리지널 콘텐츠가 부족함. 미국 각 방송사들은 콘텐츠 제작 비용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며, 아마존도 2016 년 콘텐츠 제작비로 26 억 달러(+37% YoY)를 집행할 예정임 (넷플릭스 60 억달러). 아마존은 자체 콘텐츠 제작 확대와 함께 미래 콘텐츠 영향력 확보를 위해 VR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CJ E&M, SBS 에 BUY 투자 의견 유지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투자 확대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판권 판매를 증가시키고 공동 제작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함. 국내 미디어 기업 중 우수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콘텐츠 판권 판매의 수혜가 기대되는 CJ E&M 및 SBS 에 대해 투자 의견 BUY 를 유지함.

지난 8 일, CJ 헬로비전과 합병을 추진 중인 SK 텔레콤의 자회사 SK 브로드밴드는 합병법인이 향후 1 년간 3,200 억원 규모의 영상 콘텐츠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힘. 드라마, 다큐 등 일반 영상 콘텐츠에 1,200 억원,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및 가상현실(VR) 등 융복합 콘텐츠에 600 억원, 해외 합작 등 글로벌 프로젝트에 400 억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관련 스타트업에 1,000 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임. 이후 1,800 억원을 재투자 해 향후 5 년간 5,000 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한다고 밝힘.

Figure 1 SK 브로드밴드의 콘텐츠 장르별 투자 금액

Investment	(KRW bn)
General media content	120
Convergence content (MCN, VR etc)	60
Global content	40
Content related start-up	100
Total	320

자료: SK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2 SK 브로드밴드의 투자 주체별 금액

Investment	(KRW bn)
SKB + CJH	150
Investment attraction	170
Reinvestment	180
Total in 5 years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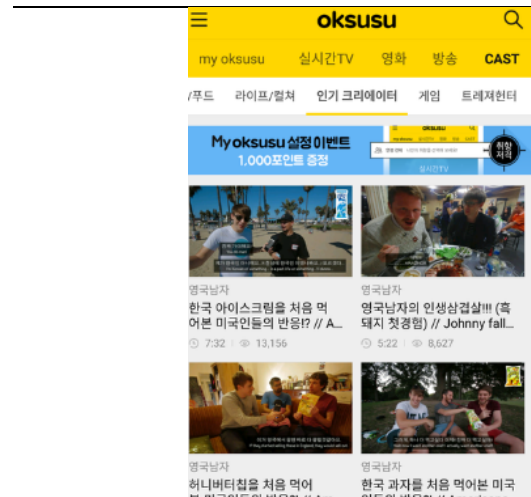
자료: SK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3 옥수수의 오리지널 콘텐츠 1 (JTBC의 '마녀를 부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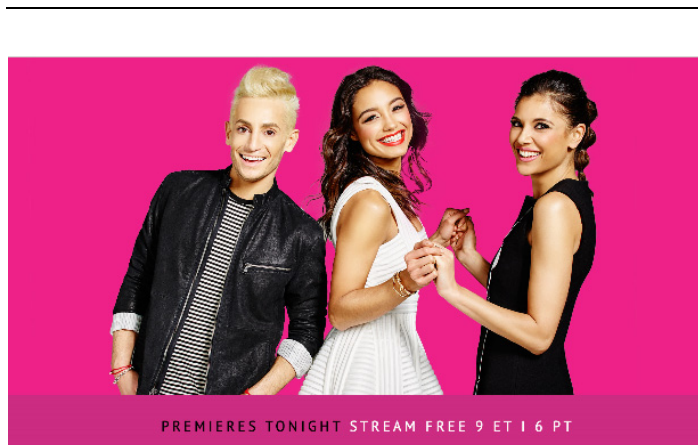
자료: JTB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4 옥수수의 오리지널 콘텐츠 2 (CJ E&M의 DIA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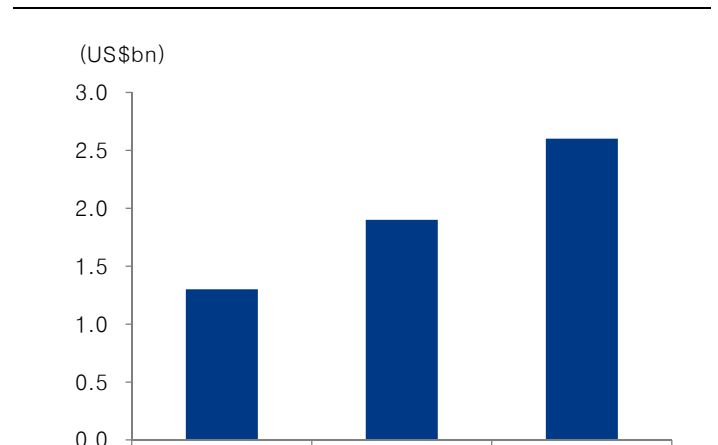
자료: SK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5 아마존의 'Style Code Live'



자료: Amazo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gure 6 아마존의 콘텐츠 지출 추이 및 전망



자료: Amazo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Recommendations		Distribution of Ratings
종목별 투자 의견 (12개월 기준)	업종별 투자 의견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 (기준일: 20160229)
BUY : 현주가 대비 목표주가 +10% 초과	OVERWEIGHT : 현 업종지수대비 +10% 초과	BUY (매수) : 85.9%
HOLD : 현주가 대비 목표주가 ±10% 이내	NEUTRAL : 현 업종지수대비 ±10% 이내	HOLD (중립/보유) : 12.9%
REDUCE : 현주가 대비 목표주가 -10% 초과	UNDERWEIGHT : 현 업종지수 대비 -10% 초과	REDUCE (매도) : 1.2%
단, 업종 투자 의견에 의한 ±10% 내의 조정치 감안 가능		합계 : 100%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유동성공급자가 아닙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정윤미]		